

SK, 30년 전 경영원칙 극찬받았다!

미국 교수, 서구 모방 아닌 창조적 방안 ... 인간중심 경영 높이 평가

한 미국의 대학교수가 세계적인 오일 쇼크로 생존에 급급했던 30년 전 SK그룹이 만든 경영원칙에 대해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에 따르면, 미국 피닉스에 있는 글로벌 경영전문대학원(MBA) 선더버드스쿨의 캐년 라마스와미 교수는 “SKMS(SK Management System)는 서구기업의 성공을 모방한 시스템이 아닌 한국기업만의 독특한 문화가 녹아든 경영법”을 제시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업경영 전문가인 라마스와미 교수는 GE 등 글로벌 대기업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영전략과 기업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라마스와미 교수는 SKMS를 분석한 글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원칙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 살아있는 가치 ▲글로벌리제이션에 필요한 가치통일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문화와 차별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업이 추구할 핵심가치로 이해관계자의 행복추구와 인간중심 경영을 SK그룹이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작고한 최중현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로 인적자원을 꼽았다”며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사람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철학”이라고 평가했다.

SK그룹은 SKMS를 처음 시행하던 1979년 선경, SKC 등의 주력사업으로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에 불과했지만 SKMS를 정립한 이듬해인 1980년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1989년 정보통신 사업에 진출하고, 최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과정도 SKMS라는 강한 기업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태원 회장은 2009년 4월 SKMS 30주년 기념식에서 “기업문화가 강해야 위기에 강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쓰나미로 고통받는 2009년을 SKMS를 근간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6>